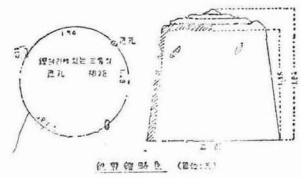
어 있으며 鐘上部가까이의 三個處에 透孔이 四五度로 길죽하게 있다。鐘表裏面에는 아무런 紋樣 等이 없으나 다만 鐘頂에는 懸鈕周圍에서 鐘頂端까지 三處에 凹圈이 있으되 中間만은 二條로 둘러있다。



鐘이 鐵製라는 것과 鐘壁에 透孔이 있다는 것은 稀罕한 遺品이다。梨大博物館所藏에 靑銅製 銅鐸에도 四處透孔이 鐘胴에 있는 것도 相通된 點이라 하겠다。

康熙十六年銘 興旺寺 大伐囉

文 明 大

鉢盂를 梵語로는 "Pātram"이라 하는데 修道僧들이 보통 乞食할 때 밥을 빌던 食器라는 말이며 따라서 그 形態는 적은것 뿐이었다。中國에서는 이 "Pātram"을 意譯하여 應量器라 했고 字譯하여 鉢多羅 鉢盂 혹은 鉢이라고도 하였다。우리나라에서도 中國과 같이 鉢盂 等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혹은 바루、바리、바릿대、伐囉、伐多羅 等으로 多樣하게 말했다。佛敎가 中國이나 우리나라 等地로 들어오게 되자 그 社會的、自然的 與件으로 말미아마 僧侶들이 一定한 寺院에서 團體的 修道生活을 營爲하면서 乞食의 風은 사라지고 소위 大衆供養이라 하는 절에서 직접 지은 밥을 큰 방에서 여러 僧侶들이 함께 食事하는 風이 流行되었는데 솥에서 큰밥통(大鉢盂)에 밥을 퍼갖고 와서 다시 各者의 鉢盂에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그리하여 印度에서부터 使用하던 個人用의 鉢盂뿐만 아니라 大衆用의 大鉢盂도 많이 만들게 되었다。

이번 全南大學校에서 開催된 全國大學博物館總會에 參席했던 길에 光州市立博物館에서 뜻밖에 作品自體로서도 뛰어날 뿐더러 年代、使用하던 寺院 等의 銘文이 있는 大鉢盂를 여러 先生任의 敎示로서 調査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기쁨이었다。

이 大鉢은 靑銹이 고웁고도 고른 靑銅製인데 높이가 四一㎝ 口徑이 八七·八㎝의 大品이다。側面의 兩側에 각 두개씩의 고리를 ❀ 달아 손잡이를 마련하였고 바닥에는 동근 銅板(高 六·四㎝)으로 脚部를 만들었으며 口部는 一段은 몰딩 一段은 평평한 二段인데 밖의 몰딩형 口部는 한열로 一二八字나 되는 다음과 같은 點字銘文이 새겨져 있다。

康熙十六年丁巳五月日鑄成全羅道順天筏橋靈缶靈鷲山興旺寺大伐囉重
一百十斤施主通政大夫□□比丘□□比丘□□□□□□丁亥生
□□□□□良□□□李龍元金順良通政大夫文奇主南時哲 化緣秩鑄造
匠人慶尙道晋州地所通政大夫金愛必別座□□比丘大?□□竺徹 三緘□
□□□□

글 첫머리에 보이다 싶이 이 大鉢은 康熙十六年 即 李朝肅宗三年 一六七七年에 만들어져 順天筏橋의 靈鷲山興旺寺에 施納되었던 것이다。여기서는 大伐囉라 했는데 이것은 말할 必要도 없이 大鉢盂이며 따라서 우리는 鉢이 伐囉로 使用된 一例를 알게 되었다。鉢盂의 多樣한 名稱이 時代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鉢이 食器뿐만 아니라 佛敎의 一樂器인 침발에도 大鉢(註)이라 했던 것을 보면 語義의 變化도 多少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註〕 鄭永鎬:「泰安寺의 大鉢과 銅鐘二口」(「考古美術」七의九)

報 告

石窟庵除濕機設置와 그 前後

朴 茂 水

石窟庵除濕機裝置工事
工事費……
執行官署……慶北道敎育委員會